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석종훈 / 조선일보 정보통신 팀장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대다. 소프트웨어는 정보산업의 꽃이자 열매이기도 하다.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92년 9,4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 1,700억원으로 3배이상 성장했다.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전체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다소 예외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소프트웨어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 미국인은 2천달러짜리 컴퓨터를 사면 3,200달러어치 소프트웨어를 산다. 일본인은 컴퓨터가 25만엔이라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금액은 27만 5천엔을 웃돈다.

국내 정보통신업계에서도 물론 소프트웨어가 아주 유망한 시장이며, 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하는 정보통신 진흥책 중에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 빠지는 일이 없다. 많은 벤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활을 걸고 달려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같은 예상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올리는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관계없는 분야에서 나온다. 1~2년전 제품을 발표한 뒤로 새로 기능이 보완된 제품을 아예 포기한 업체도 한둘이 아니다.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는 찾기 힘들고 외국 인기 제품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에 생계를 거는 곳도 있다.

물론 성공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핸디소프트는 일본에 1천억원대에 이르는 그룹웨어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됐다. 한국정보통신은 미국 통신회사에 2천억원대 통신서비스 관리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해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쉬운 것은 이같은 성공업체들의 낭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분위기는 위축되고 가라앉아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곧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소프트웨어 엑스포가 열린다고 한다.

이 행사를 통해 무기력증에 빠진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되살릴 묘안들이 백출하기를 기대한다. 설사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더라도 국내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 훤히 드러나 정부나 업계나 소비자 모두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나마 만들어졌으면 싶다. DBC